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판결들 향후 영향은?

전 미국적 확산, 교육 및 설교에도 파급 효과

연방대법원이 26일 동성결혼과 관련된 2가지 판례를 남긴 것은 향후 미국의 결혼법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먼저 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의 경우는 그 판결의 취지가 연방대법원의 판결 자격 여부나 원고와 피고의 자격 문제, 연방법과 주법의 권한 문제 등 절차상의 것이 아니라 '위헌'이었기 때문에 결국 동성커플의 모든 권익이 헌법으로 보장된다.

결혼보호법의 평등권 위헌

전국적 확산, 교육, 설교 등에 영향

원래 헌법 내지는 연방법에 관한 문제가 소송으로 번질 경우, 대통령이 수호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수호는 커녕 일찌감치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는 사상 초유의 발언을 하며 수호자의 자격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 소송은 동성커플의 공세에 끈기없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나서고야 말았다.

결혼보호법이 위헌이 됐다는 의미는 단순히 결혼보호법이 금지하던 동성커플의 세금, 상속, 사회복지 상의 연방혜택들이 폐지되는 것 이상이다. 아직은 결혼법이 각 주의 권한에 귀속되어 있기에 결혼보호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전 미국으로 동성결혼이 확산되진 않는다. 현재 동성커플이 이 판결의 혜택을 보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해 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성결혼이 불법인 다수의 주에서는 결혼 자체가 불법이므로 혜택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 동성결혼이 합법인 메사추세츠 주의 동성커플은 연방 혜택을 입는데, 불법인 조지아 주의 동성커플은 혜택을 입을 수 없다. 이 문제도 당사 불평등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각 주의 법원이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를 불법으

로 규정한다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주 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 12개 주와 워싱턴DC에서만 합법화된 동성결혼이 결국은 전 미국에 허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동성결혼이 수정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의 범주에 들면, 당장 교육에서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도 메사추세츠 주의 공립학교 교육 규정은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적 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던 아버지가 학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공립학교 7학년 성교육 시간에 남녀 간에 이뤄지는 성행위 외에 동성 간에 이뤄지는 구강성교, 항문성교도 가르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주에서 합법화된 동성결혼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성직자는 동성결혼을 주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회를 동성결혼식의 장소로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 하에서도 워싱턴 주의 꽃집과 오레곤 주의 빵집 케이스처럼 동성결혼식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법과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상황이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가장 강력한 반대자들이 교회를 회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대다수 주는 "종교인 예외 규정"을 넣곤 했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미네소타 주처럼 "교육은 물론 성직자의 설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공언한 곳은 드물었다.

그러나 동성결혼의 문제가 평등권의 문제가 된 이상 목회자가 동성결혼을 죄라고 설교하거나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경우 명백한 차별로 규정된다. 김준형 기자



C&M, 'Be Light' 주제로 총회 = 미국 교단 C&M(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가 6월 11-16일 플로리다 템파에서 'Be Light'란 주제로 제112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 총회에는 28개 지역구에서 1900명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 100명의 선교사가 참여했다. 이 총회 기간 동안 한인총회에서는 백한영 감독과 여러 선교사들이 참석했다. 현재 한인총회에는 97개 교회와 200명 교역자가 속해 있고, 67점이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탈북 고아 돕기 위해 한인음악계 힘 모은다

LAKMA-LAKPO 주최 평화음악회

내달 12일 디즈니홀

탈북 고아를 돕기 위해 한인 음악계가 나섰다. 그간 콘서트를 통해 커뮤니티를 돕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온 LA 한미음악인협회(LAKMA, 단장 최승호)가 LA 코리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LAKPO, 지휘 윤임상)와 함께 탈북 고아 입양을 지원하기 위한 평화음악회를 연다. 오는 7월 12일 오후 7시 30분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다.

이번 음악회의 주제는 '베르디 레퀴엠'이다.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은 베르디를 기억하고 정진 60년을 맞아 한국전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등 두 가지 포석을 깔고 이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아울러 탈북 고아들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 활동하며 우간다와 캄보디아 등 제3국의 결식아동을 도와온 '한수나이다 국제어린이재단(아더 한 대표)'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LAKMA는 지난해에도 자선음악회를 열어 한국입양홍보회(MPAK, 스티브 모리슨 대표)의 장학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순수익금 1만8,500달러를 전달한 바 있다.

'오페라의 황제' 베르디의 최고의 걸작 레퀴엠은 진혼곡 중의 진혼곡으로



(사진 왼쪽부터) 지휘자 윤임상, 소프라노 김영미,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베이스 김영복, 테너 로버트 맥닐

로 서양음악사에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인 미사곡과 달리 극적인 구성과 선율이 독특하다. 열정과 환희, 분노와 고통,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 등을 작품 속에 담아, 죽은 자를 위한 미사이기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베르디가 레퀴엠을 작곡한 배경은 흥미롭다. 베르디는 1863년 존경하던 작곡가 로시니가 사망하자 그를 추모하기 위해 동료 작곡가 12명과 레퀴엠을 공동 작곡하기로 했다. 하지만 작곡가들과 공동 작업이 순탄치 않아 무산됐고, 레퀴엠 마지막 부분인 'Libera me'만 완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1873년 시인 알렉산드로 만초니가 세상을 떠나자 베르디는 그를 추모하며 보관해뒀던 마지막 부분을 포함해 레퀴엠 전곡을 완성하고 1874년 초연했다.

주최 측은 "올해는 특히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맞는 해라 그 의미가 크다"면서 "감미로우면서 파워풀한 목소리를 가진 세계적인 소프라노 김영미를 비롯한 한인 최조로 벨리니 콩쿨에서 1등 한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베이스 김영복, 테너 로버트 맥닐이 한 무대에서 베르디의 걸작을 빛내줄 것"이라면서 이번 무대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LA 코리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윤임상 지휘자는 "이번 무대에는 100여명의 합창단이 출연하게 된다. 특히 한인뿐 아니라, 백인, 중국계, 일본계, 필리핀 등 6개국 다인종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는 무대라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콘서트가 될 것"이라면서 많은 한인들의 동참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티켓은 20~100달러. 문의: (213) 270-5010 / www.thelakma.org

정한나 기자

토미 테니의 <갈망하라 추격하라 붙잡으라> >> 13면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할인해 드립니다.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세계의 중심에서, 신학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합니다.”

학사(B.A.), 교역학석사(M.Div.) 과정

- 가을학기 개강일 : 8월 26일(월)
- M. Div. 온라인 강의 전격 개설(2013년 가을학기부터)
(본교는 학점제로 운영되며, 총 98학점 중 48학점을 온라인 강의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ESL 과정

“풍부한 교육 경험을 가진 현지인 전문 강사들과 각 과정별 담당 교수제를 통한 지도, 원어민 대화 상대자 배정을 통해 최고의 실용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 Level Test 및 설명회 : 8월 19~22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오후 3시
- 가을학기 : 9월 3일(화) ~ 12월 13일(금) (총 15주)
- 학비 : 학기당 \$2,200 (1년 3학기제)

입학문의

- 입학 및 등록 : 본교 홈페이지(www.ptsa.edu) '입학정보실' 참조.
- 입학 관련 문의: 미국 Tel. 1-562.926.1023, Ext. 300 / E-mail. office@ptsa.edu
한국 Tel. 010-6612-1165 박정환 목사

본교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전 세계 20지역 노회로 구성되어 있는 최대 한인교단입니다. 해외한인장로회는 북미 알래스카로부터 남쪽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북, 남미 전 지역과 하와이에서 뉴질랜드, 일본, 호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광활한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사역을 감당하며 발전하고 있는 장로교단입니다.

본교는 미국 성서대학교협의회(ABHE) 정회원,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준회원인 동시에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 직영 신학교로서, 본교에서 2년 이상 수학 후 교역학석사(M.Div.)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 예장통합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KPCA 교단에서 목사 안수 후 한국 예장통합으로 이명도 가능합니다.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SEVIS I-20 발행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김인식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1-562-926-1023 / www.ptsa.edu / office@ptsa.edu

전 세계 감동시킨 탈북소년 "나를 살린 것은 희망"

이제는 예전의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 위해 봉사

‘희망’을 붙들고 북한 국경을 넘은 한 탈북소년이, 최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 테드(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에서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 주인공은 조셉 김(사진·23)으로, 그는 현재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다.

조셉 김의 고향은 두만강과 중국의 국경지역 함경북도 회령이다. 조셉 김은 16세였던 2007년까지 김광진으로 살았다. 조셉의 가족은 항상 가난에 시달렸다. 남매 중 막내였던 조셉은 1994년 대기근 당시 4세의 나이에 누나와 새벽부터 쌀감을 찾아 나서야 했고, 자정이 돼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2003년 13살 때는 부친이 기아로 말라가고 결국에는 사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으며, 모친은 도망쳤다. 또한 중국으로 돈과 음식을 구하러 간다는, 하나 뿐인 누나와 헤어져야 했다.

순식간에 고아가 된 그는 쓰레기통



조셉 김

을 뒤졌고, 식품 수레의 음식을 훔쳐 생명을 이어갔다. 때론 아무 장비도 없이 지하 33미터 탄광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해야 했다.

그런 조셉을 살린 것은 ‘희망’이었다. 북한에서 아버지처럼 죽을 수 없다고 결심한 그는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중국 국경을 넘었다. 어둠이 무서웠던 소년은 대낮에 중국 국경을 넘는 모험(?)을 감행했고, 2006년 2월 중국 땅을 밟았다.

그는 몇 달 후 기적처럼 탈북자들을 위해 비밀 보호소를 운영하는 사람

처음으로 정기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갈 수 있었다.

북한 초등학교에서 꼴찌를 도맡았던 조셉은, 현재 우등생으로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링크(LINK)에서 일하며 예전 자신과 같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돕고 있다.

조셉은 강연에서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희망을 품고 있는 또 다른 조셉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탈북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링크는 한인 2세들이 주축이 된 비영리 단체로, 탈북자를 지원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04년 설립된 링크는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돕고, 동영상 등을 제작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홍보도 펼치고 있다. 더불어 유럽연합(EU)의 북한 인권 청문회에 참석하는 등 국제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기도 하다.

김브라이언 기자

이슬람 지도자, 반정부 기독교인들 향해 “지옥행” 경고

이슬람 단체 지도자가 이집트 내 콥틱 기독교인들에 대한 위협을 재개하고 있다. 오는 30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된 반정부 시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또한 무슬림들이 결집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슬람 동료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기독교인이 죽으면 지옥 불에 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단체인 가마아트 이슬라미야(Gamaat Islamiyya)의 지도자 아셈 아브델 마지드(Assem Abdel Maged)는 “30일 시위에 신도들을 참석시키지 말 것을 교회에 충고한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대통령궁 앞에 모이게 한 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저들은 죽으면 지옥에 간다”면서 “이번 시위는 전 정권과 콥틱 극단주의자, 공산주의자들로 인한 음모다.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미국 대사를 만난 이후 종파들의 무리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바라크 시절 3천명의 순교자가 나왔다. 무르시 대통령이 실패할 경우, 이슬람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장 나쁜 행동이 될 수 있나?

공립학교 내의 기도 금지, 美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미국의 공립학교는 50년 전부터 학교가 지원하는 기도를 비헌법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미 대법원은 20년 전부터 공립학교가 졸업식에서 기도를 후원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사안이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논쟁은 이번 달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생 대표였던 로이 코스트너 4세가, 학교 당국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은 졸업식 연설문을 읽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더욱 달아올랐다. 코스트너 4세는 이후 기자들에게 “어떻게 학교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이를 준비했다고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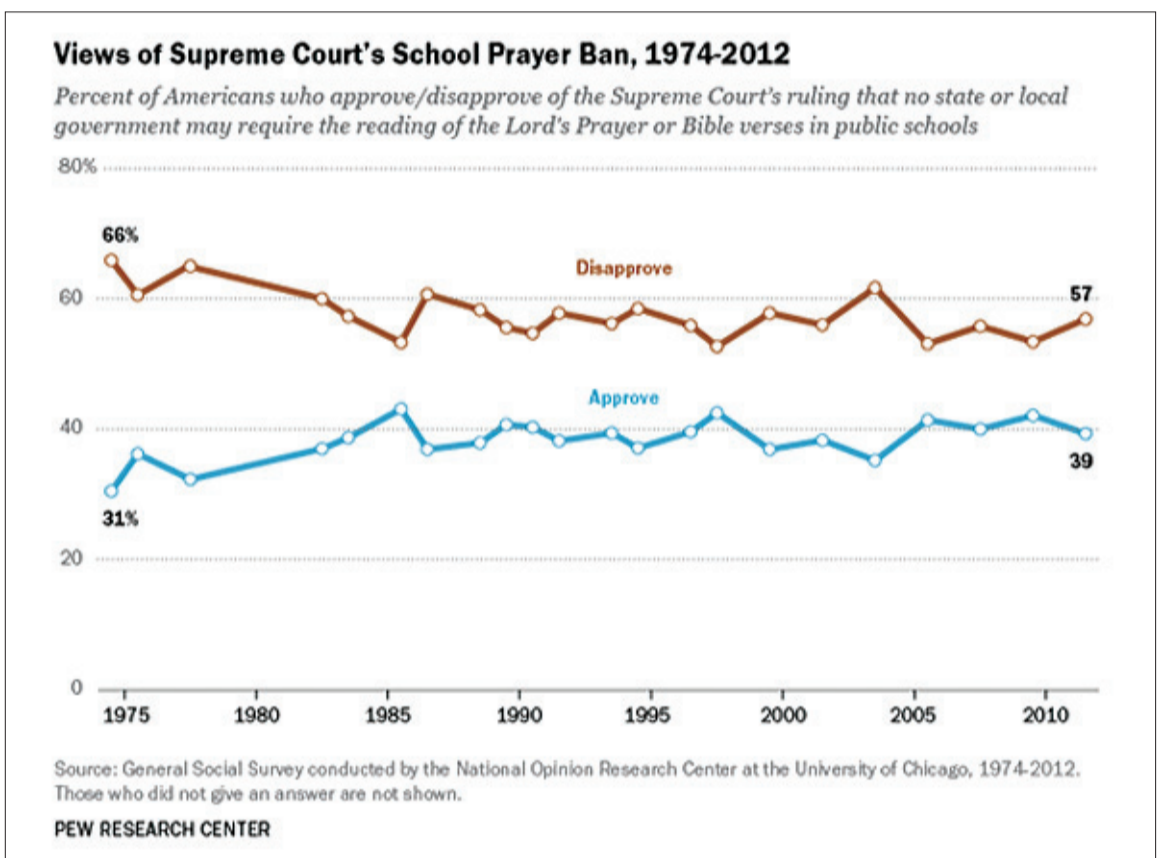
다른 많은 미국인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5% 이상의 미국인들이 학교와 정부에서의 종교에 관해 “자유가 너무 멀리 사라졌다”고 답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대다수는 공립

학교 내 기도예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주기도문을 채택할 수 없고 공립학교에서는 성경 구절을 읽힐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57%가 반대했으며, 39%는 찬성했다. 코스트너가 살고 있는 남부 지방의 경우, 1/7 이상이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18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 사이에서, 공립학교 내 기도를 금지한 결정을 받아들이는 응답률이 다른 어떤 그룹보다 높았다. 이들 가운데 약 56% 이상이 법원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허핑턴포스트는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의 기사를 인용해 “비록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신앙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면서 “그 예로 1960년대 중반, 크리스천선수선교회가 매우 크게 성장했으며, 약 8,000명 이상의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강혜진 기자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었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제5기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수강생 모집

제4기 의료선교사 수강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님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전념하고 계시며 의료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교육과정은 단기간의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의학분야의 중요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완벽한 치료술을 습득합니다.

수기치료는 약품이나 기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손만을 사용하여 온갖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술입니다. 주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실 의료선교사 제5기 수강신청을 아래와같이 실시합니다.

모집 안내

- 신청 자격 :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으로 선교에 뜻이 계신 남녀분
- 모집 대상
1. 목회자 또는 선교사님 (해외 파송 선교사)
2. 선교 사역을 원하시는 평신도,
3. 단기 선교, 또는 의료선교 사역을 원하시는 교회 선교팀
4. 의료봉사 사역을 하고자 하시는분
- 모집 인원 : LA 지역 남녀 10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제한합니다)
Orange County 지역 남녀 10명
- 교육 기간 : 총 20주 (매주 2회, 매회 2시간 교육)
- 접수 마감 : 2013년 7월 14일
- 개강 일자 : 2013년 7월 16일 (화요일)
- 교육 장소 : LA 지역 2836 W 8th #106 Los Angeles (금란 노인 상호회 건물)
Orange County 8201 2 Garden Grove (기독교 강의를)
- 접수처 : 세계의료선교사 육성 재단 213) 381-7273, 213) 605-2928
Email charliespark@hanmail.net

교육 내용 (한의학, 카이로 프랙틱, 근육치료술)

1. 근육 치료학 : 각종통증 치료술 (근육 전문 치료술)
2. 체형 교정학 : 변형된 체형을 바로 잡는 교정술
3. 척추 교정학 : 변형된 척추를 교정하여 신경의 흐름을 도와줌
4. 영양 물리학 : 자연식 요법 (성인병 예방 및 치료)

교육의 특징

본 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수기치료는 의과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오랜 기간 임상을 통하여 확고하게 연구 개발된 치료법으로 단기간에 완벽한 치료술을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약품이나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료후 특전

1. 수료증 및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자격증 수여.
2. 해외 파송 선교사님은 후원 하여드립니다.
3. 부부가 수강신청시 한분은 청강생으로 수강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한인 경제의 젖줄' 자바시장에 기도실 설립

크리스천 한인업주들 힘모아 운영... 자바선교회 거점 역할도



(사진 왼쪽)자바선교회 대표이자 방주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김영규 목사가 LA다운타운에 위치한 한인경제의 젖줄, 자바시장이 지닌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평일엔 10년째 이곳 경비원으로 일해오고 있다. (오른쪽)자바시장 내 크리스천 한인업주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새로 오픈한 기도실. 세계선교의 비전 하에 개척된 자바선교회의 사무실로도 사용된다.

미 의류산업의 메카이자 1천여 한인의류도매상가가 집중돼 있는 '한인 경제의 젖줄', 샌페드로 자바시장 내에 기도실이 새로 오픈했다. 자바시장 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크리스천 한인 업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바선교회 김영규 목사(방주교회 담임)를 중심으로 업주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마련했다.

오픈하는 데 필요한 비용 보증금 3천불은 물론, 앞으로 월세 1천불도 이곳 한인 업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된다. 자비량 사역을 위해 10여년째 평일에 자바시장 내 경비원으로 봉직해온 김영규 목사는 "아직 기도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시간 기도하러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참고로 김영규 목사 외에도 그가 시무하고 있는 방주교회 교인 5명이 이곳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다. 김 목사는 "한인 업주들 가운데 바쁜 일정 탓에 직접 기도하러 오지는 못해도, 누군가 자바시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고 있다는 분들이 꽤 많다"면서 "경기가 어

려울수록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는다. 앞으로 이곳 기도실을 통해 선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도실은 면적은 약 1000스퀘어피트로, 평일(월-금)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되며,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현재 토요일학교

운영도 준비 중에 있다. 아울러 기도실은 7년 전 "업주 1명이 변화되면 한 나라의 선교를 책임질 수 있다"는 비전에 개척된 자바선교회의 거점으로도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자바선교회는 지난해부터 차성진 인디언 선교사를 파송해 매달 5백불씩 후원해오고 있다. 정하나 기자

인터넷도 못 쓰게 하던 몰몬, 인터넷 전도 전략 발표



검은 바지에 하얀 셔츠, 명찰을 달고 가가호호 전도하는 몰몬이 전도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란 본래 명칭보다는 몰몬으로 더 잘 알려진 그들에게 가가호호 전도는 일종의 자존심처럼 여겨졌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에 미국

주류 언론들까지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소위 이단으로 분류되는 몰몬이지만 그 적극적 전도 방식만은 기독교계로부터도 부러움을 사곤 했다. 몰몬 측은 지난 주일 저녁 가가호호 방문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전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전도, 이메일이나 블로그 등 주요한 방법이다.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기에 어떤 면에서 가가호호 전도보다 더 효과적인 면도 있거니와 전도 대상자들이 직접 방문을 꺼려하고 인터넷 상에서 만나길 선호하기 때문이란 이유다. 몰몬은 청소년들이 12살이 되면 사역자로 안수하고 전도를 하게끔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남자는 2년, 여자는 18개월간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의무화 한다. 가가호호 전도와 병행하게 될 인터넷 전도에도 이 젊은 선교사들이 나서게 된다. 몰몬 관계자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며 내년이면 전세계로 확장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교회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몰몬은 그동안 "개인적인 상황은 모두 뒤로 하고 오직 주만 섬기라"는 기치 아래 상당히 강력한 선교사 규정을 갖고 있었다. 특히 몰몬 선교사들은 가족 외에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전도 정책이 바뀜에 따라 친구나, 선

교사 동료,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허가됐다. 그러나 몰몬이 제공하는 계정을 사용해야 하며 도서관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만 작성해 보낼 수 있다. 현재 몰몬에서는 7만 명의 청년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몰몬은 올

해까지 8만5천 명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몰몬의 공격적 전도는 롬니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즈음부터 두드러졌다. 몰몬은 그 당시 미국 전역에 행방불명된 몰몬교인들의 사진을 건 "I'm a Mormon" 대형광고를 세웠다. 김영신 기자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전빵
- 야채만두
- 고기만두
- 물만두
- 김치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세탁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한인교계, 전통결혼 수호 '금식기도' 펼친다

“결혼보호법·주민발의안8 위헌 되면 심각한 도덕적 타락”



기자회견에 나선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경엽 목사, 진유철 목사, 박성규 목사, 강순영 목사 (뒷줄 왼쪽부터) 홍성관 목사, 이일 목사, 박효우 목사, 송규식 목사, 양경선 목사.

남가주를 대표하는 기독교단체인 남가주교협, OC교협, 자마,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6월 말 연방대법원에서 결혼보호법(DOMA)과 주민발의안8(Prop. 8)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교계에 1일 1식 이상 금식기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최상위 재판기관인 연방대법원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이 두 가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연방법원 결혼보호법을 계속 현행법 내에 유지시킬 것인가와 2008년 캘리포니아 주민 52.24%의 찬성으로 통과된 주민발의안8이 합헌인지 여부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위헌으로 판결되면 전통결혼이 무너지는 일은 자명하다는 것이 교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모든 비도덕적 성관계까지 법적으로 인정되고 정당화될 수도 있다.

LGBT(성소수자) 관련 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결혼보호법의 대안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RFMA(The Respect for Marriage Act)라는 법안으로, 이는 도덕적으로 더 큰 타락과 가치관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이 두 케이스에

관해 판결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기각한다면, 이미 하급 법원이 판결한대로 '위헌'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남가주 교계 관계자들은 교계에 두 법안의 유지를 위해 2주 동안의 1일 1식 이상 금식기도를 요청했다. 관계자들이 밝힌 구체적인 기도제목은, 대법원의 판사들과 특히 대법관 앤소니 케네디와 엘레나 케이건의 마음이 기적적으로 두 법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18일 오후 6시 남가주교협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남가주교협 회장 진유철 목사는 “두 법안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다”며 “미국이 무너지면 선교지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쉽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주관하실 것이다.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뤄질길 간절히 소원한다”고 밝혔다.

자마 부대표 강순영 목사는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경향이 보수 5대 진보 4로, 그 중 앤소니 케네디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무너지면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력은 엄청나다”며 “한인교회들이 진지하게 미국의 도덕성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 속에서 부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LA 공동회장 박성규 목사는 “하나님께서 미국을 그냥 무너지게 두지 않으시리라 믿는다”며 “금식기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이런 영적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기독교인이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영성을 가져야겠다”고 했다.

OC교협 회장 민경엽 목사는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전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이들을 당당하게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다”며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적 위기에 빠진 미국을 위해 금식기도에 동참하자”고 밝혔다.

OC교협 부회장 송규식 목사는 “이러한 미국의 영적 위기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타치게 된다”며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 교육에 정신 차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는 “목회자들이 먼저 심각성을 알고 바로서야 할 것”이라며 “사단의 전략 중 하나는 교회가 개교회 이기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기도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계 단체들은 금식기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회원 교회와 단체, 그리고 타주 교회협의회 및 기관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덴마크, 뉴질랜드, 우루과이, 프랑스, 브라질, 영국 등이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들은 메사추세츠, 뉴욕, 메릴랜드, 메인, 워싱턴, 버몬트, 코네티컷, 아이오와,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미네소타와 워싱턴DC이다.

토마스 멩 기자

남가주 교계, '차세대 기독교 리더' 양성 위해 연합

남가주·OC교협, 8월 18일 나성순복음교회서 수여식 계획



남가주교협과 OC교협 관계자들이 연합해 차세대 리더들을 위해 장학금 모금 및 수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양 교협 관계자들.

남가주 교계가 차세대 기독교 지도자 발굴과 격려에 뜻을 모은다.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와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연합, '차세대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수여식'을 준비 중인 것.

남가주 지역 학교에 다니는 11학년 부터 대학교 2학년(2013년 9월 기준) 중 크리스천이 대상이며, 지난 1년간 성적이 GPA 3.5 이상이어야 한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출석자, 한 가정 수입이 3만 달러 이하일 경우 선발에 우선권이 있다.

학생에 비중을 두었으며, 성적과 관계 없이 일단 저소득층에 20%를 할애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는다. 타민족을 위한 비율도 10%가 배정되어 있다. 약 50명의 장학생을 모집 중이며, 대학생 36명에게 1000불, 고등학생 14명에게 500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가주교협과 OC교협이 각각 2만5000불씩 기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장학생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은 남가주교협 웹사이트(www.theckc.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재학생명서, 담임목사 추천서, 성적증명서, 교회 주보, 세금 보고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를 받고 있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8월 18일 오후 5시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장학금 마련을 위해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뜻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단체로부터 기부도 받고 있다.

20일 오후 오렌지카운티의 한 식당에서 양 교협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OC교협 회장 민경엽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라며 “히스패닉과 흑인 커뮤니티를 섬기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가주교협 회장 진유철 목사는 “두 교협이 연합해 일을 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며 “교포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초스피드 다이어트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매끼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미용침 · 얼굴축소 (안면지방제거)

자극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el: 213.380.7800/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히든웨이) |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 토 10시 ~ 2시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제24회 여름산상대부홍성회

세계 장애인과 함께

With the physically challenged of the world 일어나서 함께 가자(약2:13)

단기선교를 그리는 고국 한국에서 장애인과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문	고문	고문	증경이사장	증경이사장	직전이사장	상임회장	증경회장	증경회장	실무위원장	홍보위원장	기획위원장
홍형순 목사 삼양교회	배동윤 감독 청양리교회	추연호 목사 온계교회	김중훈 감독 월곡교회	김태식 목사 삼양중앙교회	구자경 목사 경동교회	고은기 목사 보통교회	김영덕 목사 삼위교회	최동출 목사 중곡영광교회	김평석 목사 온백중앙교회	김민교 목사 만남교회	최병현 목사 금빛성교회
진행위원장	21C위원장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박복영 목사 공주교회	이현승 목사 삼익교회	김철희 목사 하와이교회	이일성 목사 순복음교회	김경식 목사 임나무교회	김승호 목사 병복교회	정남준 목사 향촌교회	조정애 목사 한국교회	오희숙 목사 새하교회	오만근 목사 사랑교회	김익택 목사 민선교회	
사기교부장	미주지부장	뉴욕지부장	하와이지부	필리핀지부	강동지부장	아산지부장	부평지부장	홍천지부장	찬양강사	복음기수	
안성기 목사 남서교회	이종 목사 도원교회	차철희 목사 뉴욕교회	백애현 총무 하와이교회	서삼을 선교사 서남교회	김연숙 목사 수경교회	임민희 목사 온계교회	조정숙 목사 세일교회	이상옥 목사 물영교회	고해옥 사모 017-333-8291	전하리 전도사 010-3710-6418	

단기선교문의

로스앤젤레스	한국
지부장 김철환 선교사 213-736-6625(사랑의 띠 선교회)	고창수 목사 010-8870-5642, 02-2632-4806
하와이 지부 : 백애현 총무 808-383-6962	

- **우리는:** 173-245274-13-002
- **E-mail:** ellim54@hanmail.net
- **후원:** 극동방송, 미주복음방송, 미주기독교방송, 시카고기독교방송, 한-장-성, 서울운전기사 선교연합회
- **당일출발접객지:** 영등포구청 지하철역 옆 (오전 10시) (5호선2호선하차 영등포구청 옆)

일시: 2013년 7월 22일(월)~26일(금) 까지

집회: 새벽6시 · 낮11시 · 저녁7시30분

주최: **엘림장애인선교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가 30-2 유통상가 412-1
www.ellim1004.com / Tel. (02)2632-4806 · 2634-6557 Fax. 2679-5642

장소: **포천. 한국중앙기독교원**

경기도 포천시 영등면 성동4리 산 60-1(번지(파주골))
Tel. (031) 531-1151~2, 533-0602



찬양대 지휘자 청빙

남가주사랑교회에서 섬기실 교역자를
아래과 같이 청빙합니다.

1부 찬양대 지휘자(파트타임) 1명

❖ **자격:** 신학 중 혹은 신학을 마친 분
학부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
결혼한 사람으로 미국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 분

부지휘자(파트타임) 1명, 음악간사(애프터타임) 1명

❖ **제출 서류:** 개인 소개서와 이력서, 그리고 추천서 2장
(전임 사역지의 담임 목사 혹은 행정 목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 오디션과 인터뷰

❖ **마감일:** 2013년 7월 1일

❖ **문의 및 제출처:** 조성환 음악 목사 (714) 403-8952 scho@hiu.edu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e-mail: church@sarang.com



강선영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우울증치료연구소 대표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2)

오래 전 보았던 영화 <해프닝>은 아주 독특했습니다.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바람을 타고 불어오면, 사람들이 하나 둘 스스로 자살하는 끔찍한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살 바이러스'. 이것이 중증 우울증 증상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속 사람들이 무엇에 홀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자살 행위를 하게 되듯, 우울증이 심해지면 마치 자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그 무서운 죽음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려 보면 너무나 무서운 상황인데도 정신을 못 차린 채 저지르게 되는 자살.

혹자는 자살자를 사회적 도태자라고 보고, 어떤 이는 정신력 부재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속단이 맞는 부분이 있다 해도, 스스로를 죽이는 행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수 년 전 저는 과로로 인해 죽음의 고비를 경험했는데, 그 후 일시적 공황장애가 생길 정도로 공포가 제 영혼을 몰들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 찬란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상황은 이 세상에서의 개인적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적으로 혼란스럽고 명한 상태에서만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어 아무 것도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정신없이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의 유가족들은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탄이 유가족들에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자살자를 따라 자살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별의 고통과 더불어, 그런 시선에 대한 고통이 덧입혀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살한 유명인들의 유가족이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떠난 비극적 사건들이, 우리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무엇보다 주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살 유가족 모임에 참석하여 같은 고통을 나눈 사람들과의 공감 어린 지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보다 많이 살 만한 나라가 되었는데도 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을까요? 주간조선에 실린 '자살 뒤의 또 다른 비극, 유가족 100만명이 위험하다'라는 기사를 보면, 자살 문제 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유가족의 죄책감과 고립감인데, 그로 인해 이분들의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6배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31.2명, 하루 평균 42명, 2003년 이후 OECD 1위. 대한민국의 자살 현주소입니다. 2009년 기준 OECD 평균 자살률이 10만명당 11.2명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에 이어 자살률 2위인 헝가리가 19.8명인 점과 비교하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OECD 나라들 대부분의 자살률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은 유일하게 2000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살은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남기기 때문에, 특히 유가족의 '살아남아 있는 지독한 고통과 슬픔'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 명의 자살 뒤에 직접적인 정신적 외상을 입는 유가족이 평균 여섯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자살자 1만5,566명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한 유가족이 9만3,396명이라는 이

야기입니다. 자살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발생한 자살 유가족을 따지면 100만명이 넘는다고 보고됩니다.

자살 후유증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미국 인디애나대학 존 매킨토시 교수는 책 '자살과 그 후유증'에서 "자살 유가족은 강간이나 전쟁, 그리고 범죄적 희생과 같은 깊은 정신적 외상을 남기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과 공통적인 심리 증상을 겪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국립정신보건원은 "자살 시도자 4명 중 1명 꼴로 가족 중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자살자 유가족의 경우는 이것이 학습될 위험이 높아, 성장한 후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해결방법 중 하나로 자살을 선택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남은 가족들 간에도 '자살'이라는 단어는 금기시되고, 입 밖으로 한 번도 꺼내지도 못한 채 억압된 상처 때문에 수십 년 후 정신적 외해를 겪기도 합니다.

상처의 치유는 침묵을 깨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종종 자살 유가족의 끝없는 고통을 목격합니다.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온몸으로 참을 수 없는 통증을 겪으며 함께 울게 됩니다.

그들이 오랜 기간 치유를 거쳐 죄책감을 내려놓고 가벼워질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은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애도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편견을 깨고 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은 지옥행이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정죄하지 않는 긍휼한 시선으로 유가족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위를 살펴보고, 마음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어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벧전4:10)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 대회

장애우 사랑교회에서 1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찬송 잔치를 엮니다. 모든 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기도, 봉사, 마음, 시간을 내셔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06 S. Bonnie Brae St. L.A., CA90057 1차 찬양대회: 2013년 6월15일 토요일 오전10시 2차 찬양대회: 2013년 12월21일 토요일 오전10시	그랜드 파크 양로병원 Grand Park Convalescent Hospital 2312 W. 8th St. Los Angeles, CA, 90057 부활절 예배: 2013년3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추수감사절예배: 2013년11월22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성탄절 예배: 2013년12월20일 금요일 오전9시30분
---	--

■ ■ ■ 봉사자들을 구합니다 ■ ■ ■

합찬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한인 문화, 열매 사랑교회,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신학교회, 데이빗 맥 변회사 그룹, 미용실 변회사 그룹, 거주 양로병원, Lahenco, Inc. 워싱턴 자원자, 남가주 총회도도연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장애우 사랑교회 T. 213-705-0404 F. 213-251-8930 P.O.Box 742017 LA., CA90004

프로 골프 선수 지망생 모집

- 현재 타수가 보기 플레이(90타)이하
 - 대상 : 7세~11세 (1~2명)
 - 코리아타운내 픽업가능
 - 문의 : 310.598.0746/mr.jacob601@hotmail.com
- 최 제이콥 목사(Sport Missionary Professor)



'CCM 대부' 그레함 켄드릭의 새 워십 듀엣 앨범



그레함 켄드릭은 프레이즈&워십, CCM의 대부로 불려왔으며 가장 존경받는 사역자, 싱어송라이터, 워십 리더의 반열에 올라있는 크리스천 뮤지션이다. 지금까지 40여곡 이상의 작사·작곡을 통해 40여장의 앨범을 발표했으며, 5권이 넘는 책들을 썼다.

국내에도 이미 수 차례 방문해 신학교에서의 강의와 컨퍼런스를 통해 많은 사역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온 그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23세부터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영국의 스프링 하베스트 사역에 참여했으

며,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예수행진(March for Jesus) 운동을 설립해 1990년대에 177개국 1300만여명이 참여한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성장시켰다.

'비추소서(Shine Jesus Shine)',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Knowing You)', '세상 관세 멸하시려(For this Purpose)', 'Amazing love', 'History Maker' 등 그의 곡들은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 상위 50곡에 빠지지 않고 선정될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전 세계에 동시에 출시되는 워십 듀엣 앨범은 그를 존경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워십&CCM 아티스트들이 한 곡씩 공동으로 작곡·작사하고 함께 부른, 기념비적인 프로젝트 음반이다. 매트 레드먼, 폴 발로슈, 마이클 W 스미스, 르우벤 몰건(힐송), 마틴 스미스, 달린 채, 스투어트 타운엔드, 렌드 컬렉티브 익스페리먼트 등이 함께했다.

수록된 10곡의 노래에는 각 아티스트들의 영성과 색깔이 스며있으며, 그레함의 노래는 안정감을 더해준다.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복음 축제 '메가페스트', 오는 8월 달라스에서 개최



T. D. 제이크스 목사

미국의 대표적 복음주의자인 T. D. 제이크스 목사의 '메가페스트(Mega-Fest)' 행사가, 오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40개국에서 수천 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다.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으

로 돌아온 이번 축제는 달라스컨벤션 센터(Dallas Convention Center), 아메리칸에어라인센터(American Air-line Center)를 비롯한 도시의 여러 장소에서 열린다. 메가페스트 행사에는 제이크스 목사의 유명한 4개의 컨퍼런스 '맨 파워(Man Power), 우먼 다우 아트 루즈드(Woman Thou Art Loosed), 메가 유스(Mega-Youth), 메가 키즈(Mega Kids)'가 수많은 신앙인, 기업가, 연예인들과 더불어 잘 융합돼 있다.

조엘 오스틴 목사와 그의 아내인 빅토리아를 비롯해 자스민 스컬락(Jasmin Sculark), 마빈 사프(Marvin Sapp), 셸리 브래디(Sheryl Brady) 목사, E. 듀이 스미스(E. Dewey Smith), 크리스 더소(Chris Durso) 목사 등도 참여할 계획이다.

메가페스트는 참석자들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이크스 목사는 페스티벌을 통해 남성, 여성, 청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며,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삶의 치열함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04년 이 페스티벌을 시작한 제이크스 목사는 "여러분이 누구이며, 삶의 어느 순간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모두가 삶에 대한 답을 찾고 있으며, 메가페스트는 이러한 답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메가페스트는 지난 2004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체 참석자 수가 70만 명이 넘는 대형 컨퍼런스로 성장했으며, 달라스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아레타 프랭클린(Aretha Franklin), 스티브 하비(Steve Harvey), 데이브 램지(Dave Ramsey) 등이 강사로 무대에 섰다.

강혜진 기자

“동성애 회복의 꽃대는 이성애 아닌 거룩함”

동성애자 출신 美 교계 지도자, 엑소더스의 사역 중단에 견해 밝혀

지난주 금요일, 동성애자들의 회복을 돕던 단체인 엑소더스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Exodus)측이 사역 중단을 알리면서 동성애자들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동성애자 출신의 교계 지도자가 “복잡한 감정”이 든다”고 밝혔다.

'Our of a Far Country : A Gay Son's Journey to God, A Broken Mother's Search for Hope'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위안(Christopher Yuan)은 지난 21일 크리스천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안은 “내가 개인적으로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의 회복 치료법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론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충격적인 사랑이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나의 성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마약중독에서 벗어나 지난 10년 이상 넘게 멀쩡하게 살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의 앨런 챔버스 회장은 “동성애자 출신 생존자(survivors)로 불리는 사람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직접 들어왔다. 도움을 받기 위해 엑소더스와 연계된 사역이나 혹은 사역자들을 찾았으나, 더 큰 상처만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다. 수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 거짓된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의 주목을 끌었던 모든 경우 관련자와 단체를 해고하는 등 빠른 조치가 있어왔으나, 내가 공식적으로 이



크리스토퍼 위안

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동성애 단체들에게 사과했다.

엑소더스는 앞서, 동성애 성향은 회복 치료를 통해서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치료 형태에는 기도와 상담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수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법이 해롭다고 주장해왔으며, 지난해 엑소더스는 사역의 제자화 형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이러한 치료를 중단했다.

위안은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이 더 이상 성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촉진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지지한다”면서 “하나님은 동성애적 성관계나 동성애적 감정을 축복하시지 않지만, 이성애가 그 꽃대는 아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부름받았다. 성에 대한 거룩함이란, 만약 당신이 결혼했다면 배우자에

대해 신실함을 완성해야 하고, 혼자라면 절제를 통해 신실함을 완성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위안은 “이러한 뉴스에 대한 궁극적인 메시지는 인간의 모든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필연적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돼야 한다”면서 “사역들과 지역 교회는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절대로 이러한 것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희망은 반드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이 복음이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Web Program Web Design

Our Services

- 기능,속도 문제 수정
- 프로그램 오류,버그,바이러스
- Maintenance 및 관리
- 어드민 기능 추가
- 웹프로젝트 추진
- 지원가능한 CMS :
OPENCART, CS-CART, PRESTASHOP, X-CART, MAGENTO, XE , WORDPRESS등
- 메인페이지 리뉴얼
- 어플 제작(안드로이드)

기독교일보 웹개발 사업팀
T. 213 718 1512
chdailya@gmail.com

살롬장애인선교회

14회 장애인가족초청 야유회 개최



살롬장애인선교회가 지난 15일 창립 14주년을 맞아 가족 초청 야유회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장애우들이 신나게 레크리에이션을 즐기고 있다.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14주년을 기념해 장애인 가족 초청 야유회를 15일(토) 위티어 내 로우스 레크리에이션(Whittier Narrows Recreation)에서 열었다.

이날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감사예배에서 권석 목사(LA연합감리교회)가 설교를 했고, 2부 순서는 점심식사, 3부 순서는 살롬 봉사자들의

참여로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이어졌다.

야유회에서는 LA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봉사자로 많이 참여했으며 나성북부교회에서 팸빙수와 풍선 제공, 이조캐더링에서 밀반찬 제공, 새생명 비전교회와 나성북부교회,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차량을 제공했다.

토마스 맹 기자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확장 이전 기념 세일!



확장기념으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탈모닷컴(www.talmo.com)에서 베스트셀러인 최고급 제품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탈모 프리미엄 제품인데 한국에서 298,000원에 팔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300불에 시판하고 있습니다. 탈모에 고심하거나 발모를 원하시는 분이나 번비가 심하시거나 다이어트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 특히 피부건강에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300불이치 구입하시는 분들께 300불짜리 한 박스(6개 작은박스들이)를 드립니다. 그리고 덤으로 16온스 소금(소비자가격 40불) 상당을 더 드립니다. 200불 이상 구매 고객분들께는 산삼 한 뿌리도 증정합니다.

\$300불 HQ헬스 제품 구매시
\$300 탈환제품
(제품 품질매거진)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16온스(파운드)
소비자가격 40불
무료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프로모션 A
~~\$280~~ **\$100** No Tax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프로모션 B
~~\$270~~ **\$100** No Tax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프로모션 C
~~\$28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쓰시면 암, 체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할.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다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다음.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주던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가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름대로 느끼고 살아오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융연구소 수료
융학파 분석기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월-금: 10am-7pm, 토:10am-5p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비교 해설
최종휴 | 부흥과개혁사 | 416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이 아니라, 비교 해설인 점이 책의 특징이다. 개혁주의 노선의 신조나 신앙고백들을 모두 수록함으로써, 다른 개혁주의 신조들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비교했다. 또 개혁주의 노선에서 약간 좌로나 우로 치우친 계열의 신조들과 가톨릭 교리들까지 비교하면 신학적 배경을 담고 있고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다.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신우인 | 포이에마 | 384쪽

‘하늘 이야기(모세오경)’ 등의 강해서를 펴낸 신우인 목사의 이사가 강해집.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이면서,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복의 약속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 저자는 이사를 바로 이해하면 나를 억압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려 하셨던 자유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가
조앤 치티스터 | 판미동 | 298쪽

UN 산하 여성 주도 세계평화연합 공동의 장 조앤 치티스터 수녀가 쓴 책.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유대교와 불교, 힌두교 등 5가지 영적 전통별로 각각 한 가지 키워드 혹은 대주제를 설정하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인류 보편’의 ‘질문’을 5가지씩 정리했다. 이는 각각 사랑과 복종, 공동체와 깨달음, 지혜이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종종교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레드레터 크리스천
토니 캠펠로 | 대장간 | 272쪽

예수의 진정한 메시지는 전세계에서 보수적인 미국 종교를 설교하는 변역복을 목회자, 텔레비전 설교자, 그리고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에 의해 철저히 위장된 채 감추어져 왔다는 게 저자 토니 캠펠로의 주장이다. 그들은 예수가 가르쳤던 것과 매우 다른 종류의 기독교를 전하고 있고, 좋은 소식은 그 비밀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REVIEW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

토미 테니의 <갈망하라 추격하라 붙잡으라>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두란노)>, <다윗의 장막>을 쓴 토미 테니의 <갈망하라 추격하라 붙잡으라(이상 토기장이)>는 ‘하나님 임재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 갈망 때문에, 계속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다.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 하지만 이 ‘짜릿한 숨바꼭질’의 핵심은 숨기가 아니라 ‘찾기’이다. 그는 이러한 관계를 딸과의 숨바꼭질에서 깨달았다. 아버지가 더 열심히 숨는 이유는, 딸이 뽀뽀를 원하는데 고개를 돌리는 이유는, ‘나를 원하는 마음이 더욱 더 뜨거워지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숨으신다.

예배는 이 추격의 양상을 반전시킨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추격할 필요가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배자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짝 추격하실 것이다. ...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의 추격자(God Chaser)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God Catcher·원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밭’을 놓는다. 하나님은 이런 ‘열정의 밭’을 기뻐하신다.” 저자에게 차분하고 품위 있는 신앙은 ‘사치’와 같다. “우리는 영적 배고픔에서 오는 고통을 정기적인 교회 출석이나 기도 등 부차적인 종교적 의무 수행으로 무마시키려는 경

향이 있다. 우리의 경건 사전에는 ‘영적 배고픔’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없다. 오늘날 종교적 엘리트들이 이 개념을 ‘품위 없다’고 치부해버렸기 때문이다.” 가장 위대한 예배자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순간,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건물 밖에서, 즉 주일을 포함한 매일 당신을 갈망하고 추격하기를 몹시 원하신다. 자꾸 뭔가 재어보고 따져보고 머뭇거리며 체면 때문에 주위를 살피기만 하는 우리에게, ‘바디매오처럼 해야 한다고 외친다. “관계와 열정에는 논리도 맥을 추지 못할테니, 너무 염려하진 말라”는 조연도 빼놓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만남을, 뜨거움을 지속하



갈망하라 추격하라 붙잡으라
토미 테니 | 김성녀 역 | 토기장이 | 280쪽

려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기지 않은 것은 모두 내려놓고 포기해야 한다. 상한 마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요, 눈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름부음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과정에 박차를 가하게 할 것이고, ‘거룩한 좌절’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의 신호가 될 것이다. 예배가 시작될 때보다 마칠 때 영적 배고픔은 더 커져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토미 테니는 책에서 시종 ‘타는 입술과 뜨거운 마음으로’ 애타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읽는 내내 그 절절한 마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다.

믿을 수 있는 100% 대한민국 순수홍삼

농협 홍삼 한삼인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플러튼 한삼체인 입점기념으로
6월 한달 동안 특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쿠킨 후라이팬 선물 받아주세요!

1. 홍삼농축액 100g 3병 세트를 \$270 > \$200

2. 홍삼 순액 80ml 두달분(60포)을 \$240

LA 323-737-8888 / 3130 W.Olympic Blvd, Ste 120 Los Angeles, CA 90006(올림픽과 하바드)
OC 213-453-6624 (플러튼 아리랑마켓)

www.korginseng.com
email : kio6624@gmail.com

마음을 수련한다고 되는가?



남 성 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요즘 들어서 부쩍 마음을 수련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다. 단수련, 명상, 요가 등... 곳곳에서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보려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연히 한 마음을 다스

린다는 곳에서 발행한 책자를 본 적이 있다.

핵심은 이것이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번민과 아픔, 불안과 두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내 안에 가득차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비워 버리면,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기에 모든 문제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그런가?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내 안에 가득차 있는 것들을 비워 버린다고 해결되는가?

인간의 내면은 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것을 밖으로 내어 버릴 수는 있다. 그래서 자꾸 명상을 하고, 마음을 수련하여 자신

의 문제들을 내어 버리고 비워 보지만, 결국에는 비워진 자신 안에 가득한 죄된 본성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된 본성의 소리만을 듣게 된다. 이것이 명상과 마음 수련의 함정이다. 사단은 이것을 노리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수련하고 명상하면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마음은 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그 음식은 더러워지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 내면이 원래부터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은 자기자신으로부터 번민과 아픔,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인간은 내용물을 내어 버린다고 그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내면을 청소해야 한다.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내면을 청소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역사 이래로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내면의 완전히 청소한 자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기계처럼 정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내면은 오직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청소를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성령을 부어 주신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다. 성령은 우리의 내

면을 완전하게 만질 수 있는 회복의 영이시다.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우리의 전 존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그동안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던 내 마음의 그릇들을 완전하게 씻어내신다. 성령은 그의 마음과 인격에 새로운 향기를 발하게 하신다. 성령이 한번 임하시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시작된다. 성령이 마음에 내재하시는 순간부터 그는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며 설명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

이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차별 없이 임하신다. 이것만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음은 결코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교회의 특별관리



손 인 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로마제국 시대에 기독교 복음 전파는 매우 무서운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잡히면 사형이었고 그래서 예배하다가 붙잡힌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매달아 사형시키는 일들도 비밀비재하였다는 기록들이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크리스천들을 잡아들이고 전에 안 해본 방법으로 사형하는 바람에 때로는 각 도시의 원형경기장들은 짐승들이 물어뜯은 순교자들의 피로 강물을 이루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탄압하고 교회들을 문 닫게 하려고 애를 써도 교회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성도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졌으며 끝내는 로마제국이 기독교 나라로 변해버리고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친히 특별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역사의 증언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 교회는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또한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진리를 깨

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같은 진리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 관한 여러 추측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난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에만도 상당한 지하교회들이 북한 전역에 걸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을 많은 탈북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평양정권이 제아무리 별수단을 다하여 교회들을 문 닫게 하려고 광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연 교회들은 세상의 어느 세력도 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들과 러시아의 교회들이 개혁, 개방된 후에 알려진 사실은 탄압받기 이전보다 몇 곱절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진 것을 알게 되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뉴욕의 한 도시에 자리잡은 어느 한 인교회와 도시의 관리들과 건설관계자들의 압박을 받아 문을 닫든지 다른 장소로 이전하든지 하라는 강한 압력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더욱 기도에 힘썼고 예배하러 찾아오는 성도들을 꾸준히 맞이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의 시장이 어떤 스캔들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시청으로부터 사과와 편지까지 받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피흘려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특별관리해 주시는 중입니다. 각처에 흩어진 한 인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이 좌지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새 것을 찾는 것도 오래된 것입니다



장 세 규 목사
한빛지구촌교회

자주 만나 긴밀하게 많은 일을 의논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신 노 변호사입니다. 한 지역에서 30년 동안 한 분야 일을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법률 지식이나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양하고 풍성한 경험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과거에 사업이나 구호 활동 등을 통해서 꽤 많은 유대인들과 친분을 나누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대인 변호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대거 이주한 유대인 이민 1세대의 자녀 세대입니다. 주류 사회에 배경도 없고 롤 모델도 없는 이민 1세대에게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길은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40년대에 대규모로 이민은 유대인들도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고 놀랄 정도로 많은 숫자가 미국의 최고 학부에 들어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경이나 후견인 없이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길로서 자녀들을 법대에 많이 보냈습니다. 60년대

는 유대인 2세대들이 대규모로 법조계에 진출한 시절입니다. 지금 70대의 유대인 변호사들이 바로 그 당시 이민 1세의 자녀들입니다.

유대인 2세 변호사들은 그 후에 배출된 3세, 4세의 젊은 유대인 변호사들에 비해서 신앙 생활 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소위 종교적인 유대인(religious jews)로서 안식일이면 자녀들을 챙겨서 회당에 출석하고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자주 만나 가까워졌던 노 변호사도 유대교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주류 사회에서 격리된 채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사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 사회 기준에는 어색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이 사이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가볍게 유대교와 기독교에 얽힌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현대 법률 제도의 배경 등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동안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가까워지면서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 가운데 점차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회당의 이야기들도 물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중이 갈라져서 싸운 이야기, 이사회 내부의 분쟁과 알력, 회당의 "평신도" 지도자로서 존경 받던 분이 "시협"이 들어서 회당을 떠나고 아예 타주로 이사 간 이야기 등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당의 탐비와 "평신도"와의 갈등, 건축이나 큰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생기는 크고 작은 갈등 등은 작은 조각들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 사회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서양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다 똑 같습니다. 민족이 달라도 이민 사회는 이민 사회로서 똑 같습니다. 똑 같은 아시아 사람이어도 수십개의 민족이 서로 인종이 다른 것처럼 살아가듯이 백인들도 다 하얗게 보일지라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다른 인종처럼 살아갑니다. 그저 멀리 보면 다 아름다워 보이고, 가까이 가면 누추한 것이 더 잘 보일 뿐입니다. 속 사정을 잘 모르면 남이 다 행복해 보이는 것이고 속 사정을 잘 아는 "우리"는 더 불행해 보일 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시간이 흘러서 경험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사람 모인 곳에서 생기는 수 많은 불편한 일들 때문에 놀라고 힘들어 하는 것은 그런 일을 처음 당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놀라지 않게 될 뿐입니다.

성경에 담긴 지혜를 가장 잘 요약한 표현 중의 하나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입니다. 하늘 아래 인간 사에서 새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어린 생각이고, 어리석은 행동일 뿐 아니라 새 것을 찾는다는 노력조차도 이전에 다 해 보았던 오래 된 것일 뿐입니다. 정죄와 비난으로 급히 몰아가는 어설픈 판단을 내려 놓고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감싸고 지켜 줄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마저도 해 아래 새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지 사 방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농협 홍삼은 100% 대한민국 민족기업

한삼인은 정직합니다

www.korginseng.com 323.737.8888

척추 전문 한방병원 장수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생활속에서 **바른 자세**와 **올바른 생활 습관**만 지켜주시면 척추교정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앉아 있을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수면을 취할때** 잘못된 자세 또한 **운전중** 잘못된 습관 등으로 척추에 변형 때문에 척추 디스크가 발생하며 심한 통증을 유발하거나 저리며 뻣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세교정**과 **척추 교정** 및 **맞춤운동**으로 척추 디스크에서 해방되십시오. 척추는 우리 몸의 대들보입니다.

장수한의원에서는 **20주년 특별 할인 행사**로 저렴하게 척추 통증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합니다.

T. 213-219-2739 713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지난 한 주간도 바쁜 일들이 많은 주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들 외에도 DOMA(Defense of Marriage Act, 전통결혼 보호법)와 캘리포니아의 전통결혼금지 Proposition.8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바르게 나오도록 '한 끼씩 금식 기도하는 운

동'을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방송 인터뷰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한 가지의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 리더 장학금 사업' 모금을 위해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고 여러 목사님들과 전화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임원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CTS-TV 방송팀들이 교회에 와서 대담프로그를 녹화하는 일과 총영사관에서의 만찬모임과 교계의 큰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과의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바쁘게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준비하고 기도해야 했기에 잠 잘 시간조차 없어서 교회 사무실에서 며칠 철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건강함으로 한 주간을 즐기며 보냈습니다. 제가 하는 작은 일들, 작은 만남들을 즐겨워했습니다. 왜 좋은 일들, 좋은 만남만 있었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 피하고 싶은 일, 화나는 일,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주간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던 한 주간의 스케줄을 이렇게 잘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다보니 그 이유가 인뜻 깨달아집니다. 그 이유 중 확실한 하나는 바로 Father's Day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특별한 선물(?)로 인한 감사가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음식들, 좋은 환경과 좋은 만남들로 인한 감사

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니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문제들을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감격스러워 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행복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임을 또 한 번 확실하게 체험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아르헨티나와 페루에서 입당 기념 부흥성회와 창립 부흥성회를 인도하기 위해 다녀옵니다. 월요일 새벽 12시 15분에 출발하여 밤새 비행기를 타고 또 한 번을 갈아타고 월요일 저녁 7시 반이나 되어야 아르헨티나에 도착하는 19시간이 넘는 일정은, 주일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자하는 저에게는 정말 힘든 일정입니다. 이번에는 더 빡빡한 일정으로 아르헨티나

를 마치고 바로 페루로 가서 그날 저녁 창립 예배에 설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그날 밤, 토요일 새벽 0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만만치 않은 일정이지만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또 기도해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그곳의 귀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의 모든 일들도 다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또 한 번,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열 일곱번째 지팡이

바울서신의 개요와 교리서신



이학진 장로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썩난 지팡이 저자

바울서신의 연대적 순서

연대적 순서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나,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서를 분류하면

1)교리서신, 2)옥중서신, 3)목회서신으로 나누게 되는데, 교리서신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이며,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고,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이 분류는 바울의 사역을 시대별로 3개의 시대(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지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1. 교리서신, AD 50년대

안디옥의 크리스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이방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행 13:2) 이로 인하여 이방인을 위한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 1, 2차 전도여행으로 열매를 맺은 교회들이 생겨나는데, 1차 전도여행의 결과인 갈라디아 교회와 2차 전도여행으로 얻어진 데살로니가 교회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에서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이단들

의 준동으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위태로워집니다.

이에 바울은 교리서신을 써서 그들을 올바르게 훈육하고 인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사람들과 새로운 전도여행을 위하여 로마서를 저술하는데 이를 성경이라는 보석반지에 있는 보석이라고 표현하며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로마서는 따로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AD 45-50년경 혹은 57년 경,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의 국경도시로 건설된 큰 성읍이었는데 제 1차 전도여행 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의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에 유대인, 개종한 유대인,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와 반대되는, 율법을 통한 정의를 강조하여 갈라디아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사도는 (제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혹은) 제 2차 전도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됨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의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주제의 편지(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AD 50-51년경, 고린도에서, 제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몇몇 사람이 음란을 행했으며(4:3), '주님의 재림(4:13-14)과 바울의 전도 사역에 대한 의혹(2:3)을 가지고 있다 함을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본 서신을 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AD 50-51년경에 고린도에서, 첫 번째 편지 이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이 안정되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즉각적으로 재림할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에게 재림에 대하여 올바른 종말론적 교훈을 주기위해' 제 2차 전도여행(AD 50-51년경)중에 고린도에서(행 18:11) 편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제 3차 전도여행(AD 55년경)으로 추정하며 에베소에서, 교회 안에 허용된 끔찍한 죄들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려는 것(1-6 장)과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근거가 되는 교리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7-16 장)으로 성도들의 분쟁과 음행은 용납할 수

없으며(고전 6:6-9,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AD 56-57 년경에 빌립보에서(고 후 2:13, 7:5),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근친상간의 범죄를 조속히 해결할 것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연보를 계속할 것을 권장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변호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간 편지(전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는 더 분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원만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하였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자비량으로 감당하였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의 독려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공격을 받았으며 또 바울의 언변의 어눌함과 외모의 왜소함 그리고 영적 경향이 부족하고 12 제자 중의 한 사람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많이 난 바울은 고후 10-13 장의 편지를 써서 육체대로 행하는 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Gold Finger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후 배달**

봄맞이 세일
목회자님 위한 세일 20%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라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 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Cover Story

「워키토키 유럽」 저자들과 떠나는 유럽 여행 (1)

‘튤립’ 과 ‘관용’ 의 나라 네덜란드? 아브라함 카이퍼의 나라!



암스테르담에서 '자전거 여행' 중인 저자의 모습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홀로코스트 공원 앞에 선 저자

변호사(황경태)와 농부(홍윤선), CEO(주광재)와 신학도(최규동) 등 네 명의 크리스천 남성 청년들이 유럽 곳곳을 탐방하며 '살아있는 공동체 영성'을 찾아나선 여행기, 「워키토키 유럽(Walkie Talkie Europe·이담복스)」의 저자들이 신앙의 '본류'를 찾아 떠났던 그 소중한 경험을 본지에 열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그 첫번째는 최규동 대표(책 읽어주는 사람들)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개혁주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는 네덜란드에서, '실천적 공동체 영성'을 찾아 나선 이야기입니다.

우리 두 사람에게 네덜란드는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의 나라였습니다. 그는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네덜란드 수상으로서 칼빈주의를 현실정치 속에 꽃피웠던 신학자이자 정치가였죠. 우주를 뒤흔들듯 '삶의 체계로서 칼빈주의'라고 쓰여 있던 <칼빈주의 강연>의 첫 페이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주말에, 그것도 교회에서만 열렬 크리스천 청년으로 살아가던 내게 '삶의 체계로서 칼빈주의'라는 표현은 것처럼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만한 것이었지요.

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그들을 만나 21세기를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고 싶었지요.

물론 21세기의 지난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난 네덜란드가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 속이 흰하 비치는 통유리 쇼윈도 속에 몸을 파는 여자들이 반라로 누워있는 흥등가, 그 민망함을 뚫고 찾아간 고교회(high church)는 이미 기업에 팔려 십자가가 달린 대로 컨퍼런스홀로 변해 버렸으며, 다시 물어 물어 찾아간 교회에서 만난 성도(聖徒)라는 이들로부터 이번 주에는 교회에, 다음 주에는 절에, 때로는 이슬람 사원에 가기도 한다는 '경천동지'할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경건운동, 대각성 대부흥, 선교의 시대를 지나 21세기 영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중세의 영성 도사들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산 속에서 기도수행을 하면서 신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중세 교회의 심각한 타락을 막지도 개혁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기도 수행하던 젊은 루터는 그 자

리를 박차고 나와 당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95개조로 압축해서 교회 문에 못 박았으며, 칼빈은 하나님의 통치가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도 남는다는 확신 속에 신정정치(神政政治)까지도 주저하지 않았지요. 이들의 실천적 영성이 진짜가 아닐까요?

또 이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그를 정죄하고자 했던 보름스 회의에서 백년 전에 이단정죄를 받은 얀 후스(Jan Hus)에 대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제자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루터 이후 그의 공동체는 멜랑히톤을 다음 지도자로 삼아 영성운동을 이어나갔지요. 칼빈의 공동체도 그의 제자 배자를 통해 이어져 나갔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의 삶과 사상은 그들이 형성했던 공동체를 통해 역사 속에 실천되었지요.

이처럼 살아있는 '실천적 공동체 영성'을 찾아 유럽으로 여행을 떠난 네 남자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와 농부, CEO와 사회학도. 각자의 전문영역을 가지고 있는 네 남자는 기독교 후시대(Post-christianity era) 서유럽의 교회공동체를 가운데에도 루터와 칼빈의 정신과 삶의 실체를 든든히 이어가고 있는 공동체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제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계획하시나요? 앞으로 만나보실 이야기는 '선교여행기'는 아닙니다. 문화여행기라고 해두는 편이 좋겠군요. 영성은 문화라는 삶의 행태로 구체화되는 것이니까요. 실천적 공동체 영성의 역사와 현재를 찾아나선 네 남자들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실천적 공동체 영성을 찾아서

광채 형과 나는 이른 아침 전기자전거에 텐트와 각종 살림살이를 싣고 캠핑장을 나와 암스테르담 시내로 향했습니다. 자전거로 내달리는 동안 얼굴을 씻고 지나가는 바람은 시원했고, 앞길을 비춰주는 아침 햇살은 선명한 노랑빨강 튤립들을 더 환하게 비추는 화창한 날이었지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두 팔 크게 벌려 안아주고 싶을 만큼 넉넉한 마음으로 암스테르담 시내로 건너가는 통근 배에 자전거를 싣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를 향한 우리의 기대감은 화려한 튤립축제, 세계시인(cosmopolitan)의 자질인 관용도,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Rembrandt)나 고흐(Gogh)도 아

이런 역사를 웅변하고 있는 네덜란드를 찾아가는데, 어찌 흥분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통치 역사의 부분이 라도, 작은 흔적이라고 찾아 가슴에 담아두고 싶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해 다 무너져 꺾일만 남은 유다 왕국 속에서 노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은 레갑 족속처럼, 역사 속 탁월한 전통을 담지 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를 만나고 싶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테크 SEJONGBIOTECH, INC.

세종 송보감

“충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겉술로 만든 발효홍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세리토스현대 CERRITOS HYUNDAI

EQUUS SIGNATURE 2013	SONATA GLS 2013	ELANTRA GLS 2013	ACCENT GLS M/T 2013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499 Lease per month plus tax</p>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109 Lease per month plus tax</p>	<p>5 @ THIS PRICE</p> <p>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p> <p>\$99 Lease per month plus tax</p>	<p>VIN# NDU423702</p> <p>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p> <p>\$89 Lease per month plus tax</p>

한인담당
Alex Shin
CERRITOSHYUNDAI.COM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7월 3일 까지입니다.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18818 Studebaker Rd
Cerritos, CA 90703

Tel. 562.900.2399

Cover Story

분당 지구촌교회 진재혁 담임목사

진재혁 목사 “부교역자는 ‘샌드위치’ ? ‘연결고리’ 가 되자”



‘을’ 의 설움 겪는 이들에게 경험담과 노하우 전하며 격려

‘갑’ 위치 담임목사로 인해 곤혹스러울 때 많아
여성 부교역자들, 대우 등에 있어 더 고민 느껴

담임목사 되고 나면 제대로 해야겠다? ‘착각’ !

분당 지구촌교회 진재혁 담임목사가 부교역자 시절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리더십 노하우를 부교역자들에게 전수했다.

‘이젠 부자(부교역자) 리더십이다! 부교역자 리더십 세미나’가 24일 오전(한국시간) 분당 지구촌교회(담임 진재혁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온 부교역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의를 전담한 진재혁 목사는 먼저 부교역자의 고충을 설명하며 이를 ‘진퇴양난, 부교역자의 딜레마’라고 표현했다. 진 목사는 “부교역자들은 중간에서 ‘샌드위치’로 끼여서 그냥 스트레스만 받는다. 담임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며 “어떤 교회 담임목사는 화가 나서 꽃병을 집어 던졌다고 한다. 또 다른 교회 담임목사는 새벽기도에 안 온다고 부교역자의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처럼 부교역자는 ‘갑’의 위치에 있는 담임목사의 횡포에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고 했다.

또 진 목사는 부교역자들이 담임목사를 존경할 수 없을 때가 많으며, 담임목사의 비전에 공감하지 못하는 등 ‘무기력증’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목사는 여자 사역자들의 고민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 전도사들은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같이 사역하던 남자 전도사들이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와서 ‘폼’을 잡는다. 상대적으로 여자 전도사에게 대우도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담임목사도 될 수 없음에 절망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목사는 “부교역자들이 자신에게 ‘언제까지 내가 이려고 있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며 “부교역자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신세가 한탄스러울 때도 많다. 하지만 깊은 영적 침체와 많은 갈등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주권적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 목사는 부교역자의 착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것이 꼭 ‘일장춘몽’과 같다고 했다. 진 목사는 “부교역자들은 ‘내가 담임목사가 되면 그 때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집중해서 잘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담임목사가 돼도 잘하지 못한다. 왜냐면 그 때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리고 진 목사는 흔히 부교역자가 착각하는 부분이 ‘내가 담임목사라면 절대로 저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라며, 그는 “부교역자로서 담임목사를 지켜보며 훈수 둘 때는 잘 보인다. ‘왜 저렇까’, ‘왜 모를까’, ‘내가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식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담임목사가 됐을 때 예측하지 못했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타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담임목사가 감당하는 책임감과 위치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목사는 또 부교역자 자신이 ‘난 담임목사보다 뛰어나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부교역자들은 평신도들이 부추기는 행동에 착각하면 안 된다. 사실 평신도들은 부교역자보다 담임목사에게 관심이 많

다. 담임목사라는 자리는 매우 힘든 자리다. 나 자신도 다른 교회에서 시무할 때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성도가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것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를 떠날 때 힘들게 했던 5명의 성도만 공개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선포하지 않고 교회를 떠났다. 그만큼 목회는 힘들다.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해야지, 평신도들의 부추김에 넘어가 우쭐해 하며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특히 진 목사는 교회에서 중간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간 리더십이 어떠냐에 따라 그 교회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될 수 있다는 것.

그는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동역

자다. 연결고리인 셈이다. 연결고리가 강할 때 동력이 전달될 수 있다”면서 “부교역자의 사명이 큼을 알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길 바란다. 부르심에 대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권면했다.

더불어 진 목사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 상처받은 부교역자가 결국 상처 주는 목회자가 되더라.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담임목사들이 많다. 여러분이 ‘그 때’가 되면 부교역자들의 중요성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진 목사는 부교역자가 리더로 성공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돈, 성, 권력, 교만, 가정·친지의 문제, 무사안일주의, 심리·정신질환 등이라며 이를 극복할 것을 당부했다.



진재혁 목사는 자신의 경험담을 토대로 부교역자들에게 현실적 조언을 전했다.

감림 수양관 여름수련회 접수

새로운 지도자가 2세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이 단장한 감림산 수양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접수중

- 30-200명 수용가능9개성전(학생, 전교인, 프레스 디아스)
- * 한, 중, 일, 양식제공 (별도 대형 2개 주방시설 완비)
- * 동시에 3 그룹 300명 수용 (침실, 샤워, 냉 온방 시설)
- * 300대 주차장, (축구, 족구, 배구, 농구 운동장)
- * 어린이 역사, 자연학습장(동 식물농장, 풀장시설)

치유 사역 : 영육간에 지치고 병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세계적으로 능력있는 강사 30명 초청)
- JS Healing Ministry: President Moses S. Kim Pastor (213)216-3700

중·고교 학생들의 금식기도 팀은 무료로 봉사합니다.

다민족 2세들을 하나가 되게하는 비전 실천; 기초과학 부분인 수학을 지역사회에 10개 지부에서 7년간 봉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부설립을 지원합니다. www.glimathclub.com

노후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함께 보내며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각종 **건물관리**에 은사를 가진 분을 모집합니다.

24101 Christs Tree Ln, Perris, CA 92570

감림 수양관 연락처 (951) 943-4207, (909)-993-3939, (323) 868-9191, (213) 216-3700
www.gamrimsan.com / www.kamlimretreat.com / www.retreatkamlim.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 철공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용접, 게이트 경남 철공소

모터 수리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투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백베어 농축 흑염소

-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 왕세손 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복용2년]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스마트 월드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완전 인가 건강 필라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젊은 샐리온! 자동차 매트 커버 \$30 강력안염이온 • 원적외선 방출

졸음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승기력 관력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tax

로메오 갤럭시 833 S.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one stop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SUPER STORE

월 스페셜!

좋은 이자율! 최상의 서비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곳!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82
+TAX



2013 ACCENT GLS (STK #398513)

36 Month lease/12k mile/T.D.O 2,999

MSRP \$16,890

PH HYUNDAI D/C \$1,373 MILITARY REBATE \$500
COMP.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STK #713499)

36 Month lease/12k mile/T.D.O 3,499

MSRP \$22,375

PH HYUNDAI D/C \$1,325 LEASE CASH \$1,00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123
+TAX

2013 EQUUS SIGNATURE

24 Month lease/12k mile/T.D.O 4,999

MSRP \$60,170

LEASE CASH \$1,000 COMP. REBATE \$1,000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419
+TAX (STK # 069579) Demo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다양한 차량과 색상 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5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